



하락장에 레버리지ETF와 성장성 있는 펀드로 대응

1. 국내주식(ETF제외)펀드로 장기 투자

- 지수 하락이 이어지면서, 국내주식펀드(ETF제외)로는 저가매수 이어짐
- 최근 6개월간 자금 유입 규모가 큰 액티브주식펀드는 ESG, IT, 가치주, 액티브ETF 등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

2. 최근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로 자금 유입 증가

- 주가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시장지수 관련한 ETF와 레버리지ETF로 투자 늘림
-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낙폭이 컼던 미국 기술주와 배당주, 전기차 관련 펀드의 자금 유입 증가

3. 글로벌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지속

- 1월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로 자금 유입 이어짐
- 미국 주식펀드와 ETF는 자금 유입 규모 감소
- 2020년 하반기부터 자금 유입이 이어져왔던 미국채권펀드와 ETF는 1월 2주째부터 순유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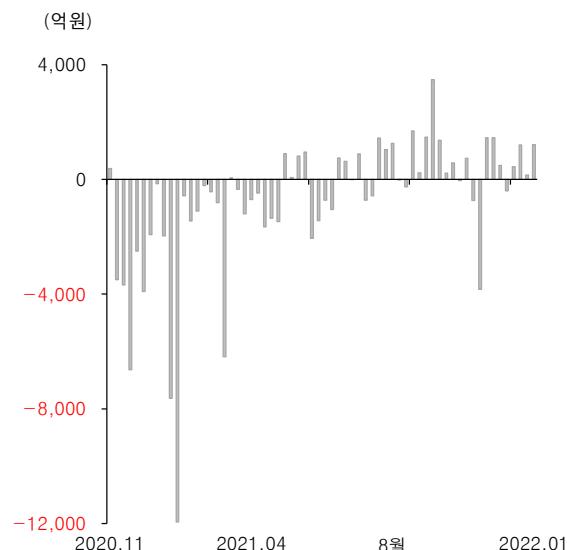
1. 국내주식(ETF제외)펀드로 장기 투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커졌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영향으로 변동폭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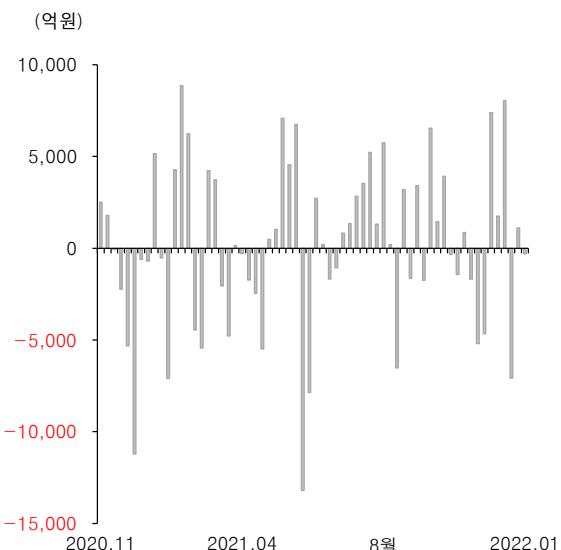
지수 하락이 이어지면서, 국내주식펀드(ETF제외)로는 저가매수가 이어졌다. 주간 국내주식(ETF제외)펀드의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2020년 하반기에는 자금 유출 규모가 커졌다. 2021년 주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내주식(ETF 제외)에서는 자금 유출 규모가 줄어들었다. 2021년 하반기 이후로는 국내주식(ETF제외)펀드로 주간 평균 519억원이 유입되고 있다. 국내주식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출입 변동성이 커졌다.

최근 6개월간 자금 유입 규모가 큰 액티브주식펀드는 'KTBVIP스타셀렉션', '한화 ArirangESG가치주액티브', '마이다스책임투자', '타임풀리오마켓리더', '미래에셋코어테크' 등을 들 수 있다. 자금 유입이 큰 펀드는 ESG, IT, 가치주, 액티브ETF 등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챠트1] 국내주식(ETF제외)펀드로의 자금 유입 지속



[챠트2] 국내주식 ETF는 12월 종순 이후 자금 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최근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로 자금 유입 증가

1월 중순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1주일간의 하락 폭은 매우 커졌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시장지수 관련한 ETF와 레버리지 ETF로 자금 유입을 크게 늘렸다. 최근 1주일간 자금 유출입 상위 국내주식펀드 15개 중에서는 시장지수 관련 ETF 7개, 테마 ETF 7개, 레버리지 ETF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순자산 대비 자금 유입 규모를 살펴보면, 특히 레버리지 ETF와 코스닥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크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향후 단기적으로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ETF의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 TECH, 메타버스 등 테마 ETF로도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해외주식형 펀드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주일 동안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진 펀드는 '미래에셋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 '미래에셋TIGERS&P500',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 '한국투자 미국배당귀족' 등을 들 수 있다. 낙폭이 커진 미국 기술주와 배당주, 전기차 등에 대한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내와 해외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국내외 주식펀드에서의 환매규모는 줄어들었다.

최근 1주일 자금 유입 상위 펀드				(단위: 억원)
펀드	유형	순자산	자금유출입	
삼성 KODEX200	인덱스코스피200	55,654	3,406	
삼성 KODEX 레버리지	인덱스기타	19,319	2,966	
미래에셋 TIGER2차전지테마	인덱스섹터	12,768	1,852	
미래에셋 TIGER200	인덱스코스피200	20,414	1,235	
삼성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인덱스기타	7,924	1,045	
삼성 KODEX 코스닥150	인덱스기타	4,890	846	
키움 KOSEF200	인덱스코스피200	5,997	695	
NH-Amundi 코리아2배레버리지	인덱스기타	6,548	422	
삼성 KODEX 2차전지산업	인덱스섹터	11,826	258	
미래에셋코어테크	인덱스섹터	5,970	228	
미래에셋 TIGER 현대차그룹+	인덱스기타	1,067	213	
KBSTAR200	인덱스코스피200	10,209	193	
미래에셋 TIGERFn 메타버스	인덱스기타	3,624	178	
삼성 KODEX 코스피	인덱스기타	3,685	170	
하나 UBS KTOP KOSPI50	인덱스기타	218	146	

자료: FnSpectrum,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1월 27 영업일 기준

3. 글로벌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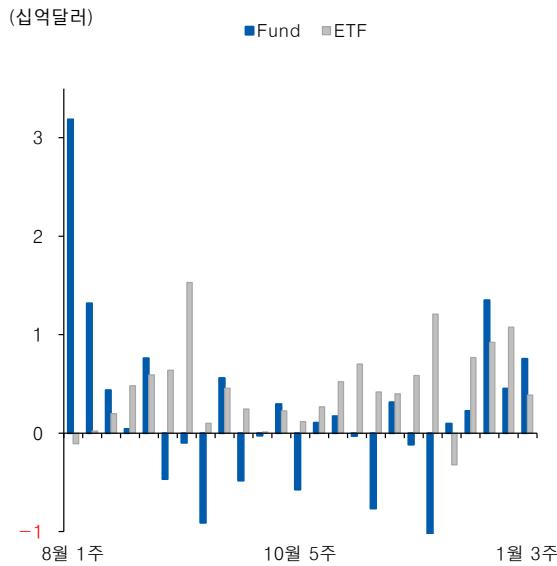
금리인상,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자금이 유입되었다.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1월 3주(1월 17~21일)까지 순유입을 이어갔다. 아직 주간 집계 중인 24~27일에도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1월의 국내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는 뮤츄얼펀드의 종목 비중 조정과 해지펀드·패밀리오피스 등의 매도 영향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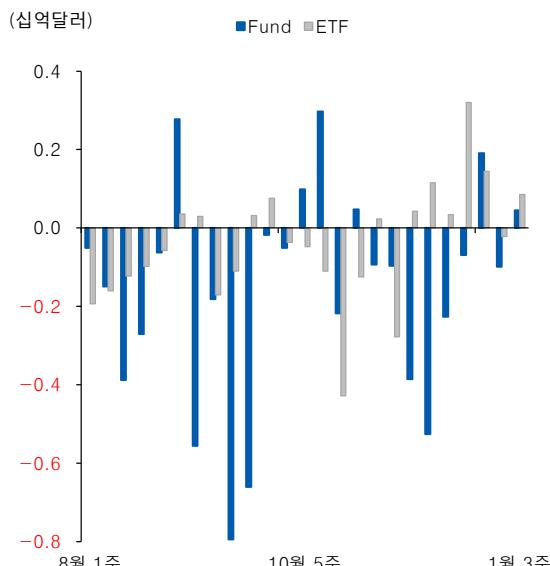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올해 하반기 순유출이 이어졌으나, 최근 들어 자금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주식펀드와 ETF는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으나, 1월 들어서면서 자금 유입 규모는 줄어들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자금 유입이 이어져왔던 미국채권펀드와 ETF는 1월 2주째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글로벌 펀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글로벌펀드시장의 일시적 자금 유출 전환 가능성이 있다.

[차트3] 신흥국주식펀드와 ETF, 자금 유입 지속



[차트4]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 자금 유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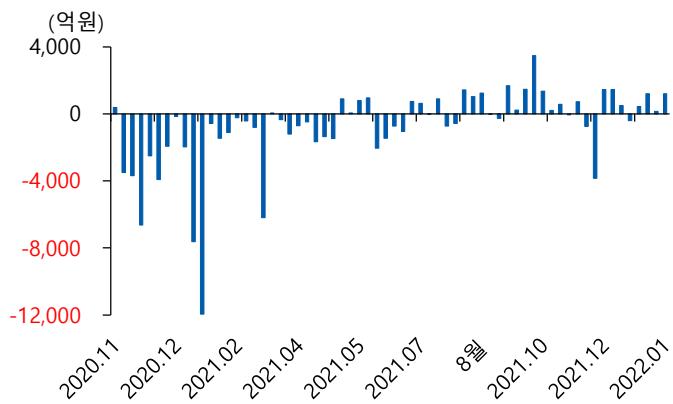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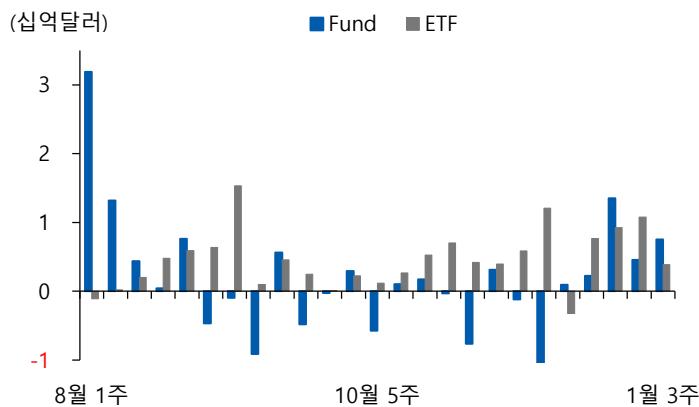
Key Chart

국내주식(ETF제외)펀드, 자금 유입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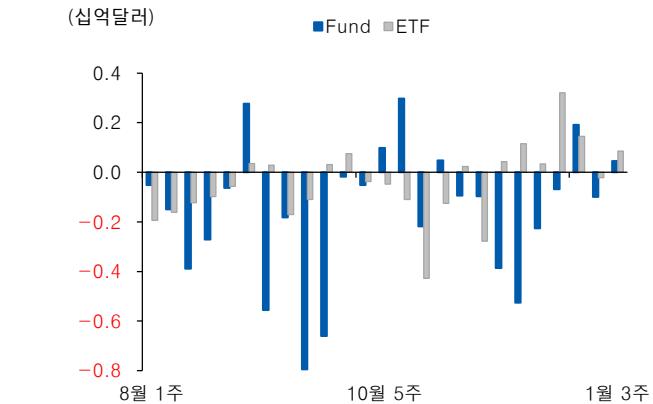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주식펀드와 ETF, 자금 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 자금유입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